

우리음악에 푹 빠진 사람들

치과의사 국악동우회 (참소리)를 찾아서

글·사진/이윤복

지난 5월 17일 모임결성

강남의 한 지하에 들어서자 일상적으로 듣기가 어려운 전통 고유 악기 연주 소리가 정겹게 들린다. 새롭게 단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지하의 연습실에 들어서자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장면 사진이 크게 걸려있고 각종 전통악기와 교본들이 빼곡하게 차있다.

우리 음악없이 못사는 사람들, 아니 우리음악에 미친 사람들!

이들은 외롭게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동안 각자의 마음속으로만 품고 애타게 기다렸던 모임이 만들어지고 자주 만나 연습까지 할 수 있게 되 더 이상 외롭지는 않다. 그것도 같은 치과의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전통음악을 한다는 자부심과 우리것이 좋아 전통악기에 푹 빠진 참소리회원들.

이들은 오는 9월에 세계치과의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음악을 자랑스럽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래서 더욱 연습 하나하나에 열중하게 되고 기대감이 넘친다. 치과의사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국악동우회 모임을 만들게 되어 메마른 갈증이 해소되어 어깨가 들썩거리고 절로 신이난다. 화요일만 되면 더욱 신나고 평상시보다 일찍 진료를 마쳐야 한다. 화음이 어우러진 그들만의 연습공간으로 한걸음 달려가야 하니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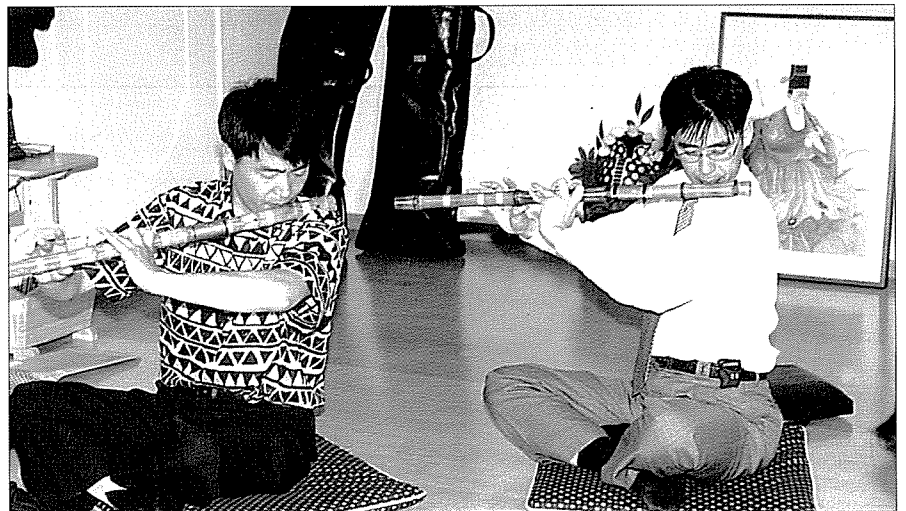
참소리 모임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애땀과 희이름을 정하게 된 사연도 기이하다. 서양음악이 온통 사회를

지배하는 현실속에서 우리 것도 잘 모르고 내팽겨치는 현실이라 더욱 가슴이 아팠고 동우회 이름인 [참소리]도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안수동원장의 꿈에 나타났을 정도.

지난 5월 17일 첫 모임을 갖고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동료들과 함께 자리를 어렵게

회원들의 음악열정도 다양하고 재미있어

이들의 국악에 대한 인연과 열정은 놀라울 정도.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국악 관현악단을 만드는게 꿈인 안수동 원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리를 부는 사람이라고 강조해서 말한다. 피리불기가 어려운 만큼 자부심도 대단하다. 늦



▲ 박인호씨와 이영준씨가 대금을 불고있다

마련했다. 동우회' 이름도 서양 문물이 판치는 세상속에서 우리의 것, 진정한 우리의 소리를 울리게 하자는 의미에서 [참소리]로 정해졌고 바로 연습실로 달려가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준비해온 악기를 시범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보는 얼굴들도 많았지만 오랫동안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들같이 포근하게 느껴졌고 이날 이들의 감동과 기쁨은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

짜이로 입문해 50대 중반에 이른 안 회장은 흰머리가 눈에 많이 띄기도 하지만 초롱초롱한 눈방울을 가지고 있다. 참소리 모임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고 모임이 만들어지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다.

'음악은 자기 감정의 표현'이라 말하는 이정래 원장의 음악역정은 길다. 치대에 입학하기 전에 재수와 다른과에 재학중이었다가 학업을 포기하고 대금을

전공하려 국악원에 몇 년 다니기도 했다. 음악을 위해 전주까지 내려갔고 결국은 전주에서 치대를 졸업했다. 대금 연주 솜씨가 뛰어나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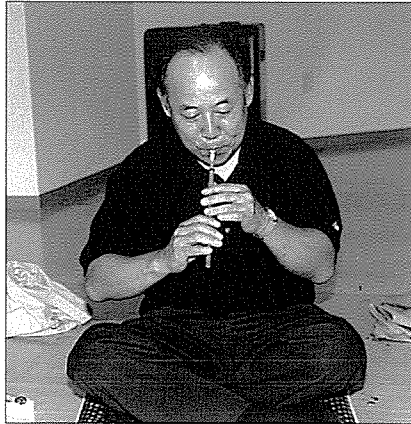
동작구에 개원중인 김준수 원장. 영문학도 출신으로 항상 걸어다닐 때도 단소와 해금을 손에 놓지 않았고 단소를 잃어버렸을 때는 땅을 치고 영영 울기도 했다. 그의 부인도 든든한 후원자이며 해금과 단소를 연주 할 수 있다. 단소를 배우러 풍류회(국악하는 모임)에 갔다가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단소를 배웠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다.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만큼 음악으로 하나되는 동우인 부부라 더욱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시골 아저씨같은 털털한 인상을 가진 김성간 원장의 경우 국악에 입문하게 되게 된 동기는 순전히 자식 사랑. 등산,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에도 만능맨인 김 원장은 자식의 음악성적을 위해 국악원에 등록시키고 저녀에 데리러 갔다가 본인이 직접 참가하게 되었고 지금은 단소가 수준급이다. 예전에 등산을 갔다가 등산모를 벗어놓고 단소를 불다가 나중에 보니 등산모에 얼마간의 돈이 모였다는 웃지못할 사연도 가지고 있으며 연습실을 마련하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우리 소리가 진정한 소리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박인호 원장. 얼굴에 어린애

같은 인상과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며 참소리의 살림을 맡고 있다. 학장 시절 대금을 항상 들고 다니다가 [대검]으로 사용하는 데모시위대로 오인받아 전경의 검문까지 받은 가슴아픈(?) 에피소드도 가지고 있다.

경희치대병원 교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회원도 둘이나 된다. 교정과 임상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영준씨는 학창 시절 치대생이 대금을 연주한다는 소식을



▲참소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안수동원장

전해들은 타대와 타과의 공연에 초청되어 연주도 여러번 갖기도 했다. 가야금을 연주하는 고수진 씨는 수련이라 제일 바쁜가운데도 자기 몸체만한 가야금을 들고 연습에 참여한다. 시간을 내기가 다른 회원들에 비해 좀 어렵기는 하지만 회원들중 제일 막내이고 남자회원들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고와보인다. 거문고를 연주하는 치과의사를 애타게 기다리던

차에 이 모임에 늦게 결합한 이유일 원장. 주위 친구들이 '참소리가 너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격려해줘 부천에서 달려왔다. 병원에서도 쉬는 시간에 자주 연습을 하는데 환자들이 [국악연구소]냐고 물어보기도 하며 굉장히 좋아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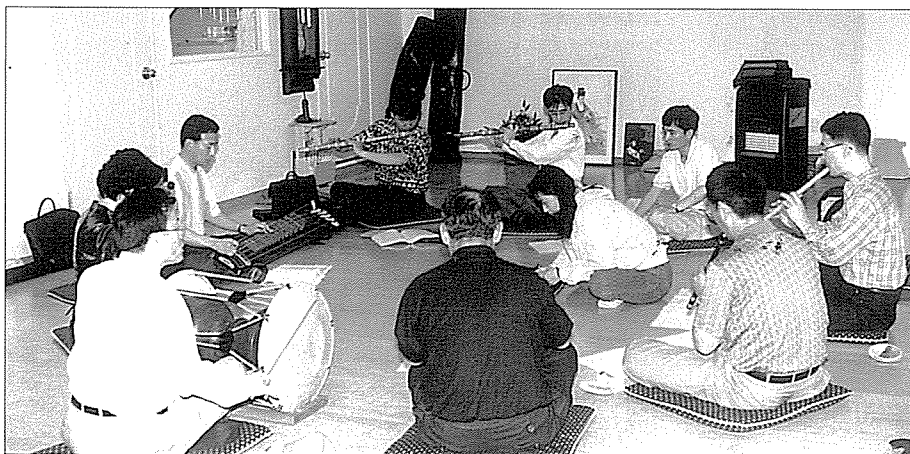
경기도 안양에 개원중인 이동찬씨의 고향은 전주다. 그래서 더욱 열정이 있는 것 같다. 단소 4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연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주로 밤 12시 이후에 단소를 부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TV에서 [국악의 향연]의 방송시간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고.

이날 연습에는 빠졌지만 등치만큼이나 너그럽고 인자한 표정의 전병진 원장은 대금을 불고 있으며 상계동에 개원 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서울총회에서 우리음악 꼭 들려주고 싶어

이날은 교육방송과 KBS 라디오에서 취재를 나와 참소리 회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녹음중에도 계속 웃음이 튀어나와 모임이 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오랜 모임 같은 느낌을 주고는 했다. 현재 회원은 11명. 이유일 원장이 늦게 결합하면서 거문고 연주자는 확보되었지만 [양금]을 연주하는 분이 있으면 완벽한 합주를 할 수 있게 된다.

한달에 2번 모여 [염불타령] 합주를 연습하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매주 모여 연습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 무대에 설 날을 기대하며 곧 개량한복으로 된 무대복도 준비하는 등 하나 하나 틀을 잡아 나가고 있다. 굳이 세계치과의사연맹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세계인이 모인 가운데 우리 전통 음악을 들려주겠다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우리 것을 소중히 하고 우리 것에 흠뻑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시대의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들인 듯 싶다.



▲참소리회원이 치과에서 벗어나 국악소리에 심취하여 연주하고 있다